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5호 [루제 제26159호] 주제 107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모스크바

로 씨 야 련 방 대 통 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뿐진각하

나는 조로외교관계설정 70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선대지도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조로친선협조관계는 호상존중과 선원, 호혜의 원칙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왔으며 이미 한 전통은 세 세기에 들어와 변함없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나는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친선관계가 새 시대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들의 빠른 부합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설적으로 계속 발전하려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강력한 로씨야를 견실하고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과 귀국인민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은

평 양

주제 107(2018)년 10월 12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중화인민공화국 제육대표단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우리나라를 친선방문하고 있는 중화
인민공화국 제육대표단이 선물을 드리
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선물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대표단 단장인 구종봉 중국국가체육총국
국장이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로드니아정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홈페이지로 높이 추대
되신 21돐, 조선로동당 창건 73돐

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인민대중에 대한 열사』

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
식이며 불파의 힘의 원천이다』 『주체사상』에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령도 따라 경제건설대진군의 포성을 힘차게 울리며 질풍같이 내달리자

증산돌격운동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정치사업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각지 당 조직들에 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
를 기어이 점령함에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달이고 각지 당조
직들에게 대중의 정신력을 담김
없이 발휘시키기 위한 조직정지
사업을 써고들여 성과를 이룩하
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해당부분,

단위들의 사업이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이념,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직지도자를
강화하며 정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
법으로 사회주의길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야겠다.』

2. 8직동정년단장 초급당위
원회에서는 종업원들의 결의
보임을 열고 위대한 창군의
봉양과 명도업적이 깃들어 그들
에게 헌신하는 정신을 높여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
을 맡고있는 중요단장에서 일한
다는 영예와 금지를 알고 증산
돌격운동의 앞장에 서도록 그들

의 애국열의를 날겁없이 불출시

졌다. 판부들속에 들어간 초급
당일군들은 한팡이 낳은 김유봉
영웅처럼 오늘의 하루하루를 위
후로 빛내여자고 싶어 이를 놓을
 않았다. 그리하여 많은 석탄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순천화력발전소 초급당위원
회에서는 증산돌격운동에서 당
세포들이 척후대의 영예를 떨치

도록 사업을 짜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조선로

동당 제5차 세로위천창대회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직지도자를
강화하며 정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
법으로 사회주의길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야겠다.』

3. 8직동정년단장 초급당위
원회에서는 종업원들의 결의
보임을 열고 위대한 창군의
봉양과 명도업적이 깃들어 그들
에게 헌신하는 정신을 높여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
을 맡고있는 중요단장에서 일한
다는 영예와 금지를 알고 증산
돌격운동의 앞장에 서도록 그들

의 애국열의를 날겁없이 불출시

졌다. 판부들속에 들어간 초급
당일군들은 한팡이 낳은 김유봉
영웅처럼 오늘의 하루하루를 위
후로 빛내여자고 싶어 이를 놓을
 않았다. 그리하여 많은 석탄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다.

순천화력발전소 초급당위원
회에서는 증산돌격운동에서 당
세포들이 척후대의 영예를 떨치

도록 사업을 짜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조선로

동당 제5차 세로위천창대회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직지도자를
강화하며 정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
법으로 사회주의길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야겠다.』

4. 8직동정년단장 초급당위
원회에서는 종업원들의 결의
보임을 열고 위대한 창군의
봉양과 명도업적이 깃들어 그들
에게 헌신하는 정신을 높여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
을 맡고있는 중요단장에서 일한
다는 영예와 금지를 알고 증산
돌격운동의 앞장에 서도록 그들

수백km의 도로기술개건 진행

전국 각지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
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나라의 열
교이에 경제발전수준과 문명수준
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
인 도로의 면모가 일신되고있다.

종합민자회의에 의해 가을철
국도관리총동원사업이 시작된다
때로부터 지금까지 각지 일군들
과 군로자들은 수백km의 도로를
기술개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로건설과 관리를 잘해야야
나라의 경제를 밟아나가고 민민
들이 생활환경의 보장할수 있
으며 국로의 면모도 일신할수
있습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모든 일
군들과 군로자들은 국도관리총
동원사업에 봄으로부터 기위한
한 사상전의 철종포화, 헌속포
화, 명증포화를 끌어대였다.

자체 경쟁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도로기술개건전
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회원군, 회장군, 천마군, 장군군
을 비롯한 여러 시, 군들의 일군
들과 군로자들도 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의
기술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
업을 본격적으로 내밀어 날로 늘
어온 수송수요와 민족들의 교통
상번의를 모모할수 있게 하였다.

평성시에서도 성과를 거두었
다. 국도관리총동원운동의 불길
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
명정신으로 내부에비를 적극 통
원하면서 철도와 항공, 해상, 유통
등에 당일군들을 달동네에 달렸
다. 일군들은 직업 직업에 힘써
나가면서 필요한 자재를 자체제
작으로 철도작업을 불이 달았다.

공사장은 일군들이 끝없이
움직이며 일군들은 철도와 항공
등에 당일군들을 달동네에 달렸
다. 일군들은 직업 직업에 힘써
나가면서 필요한 자재를 자체제
작으로 철도작업을 불이 달았다.

이들은 도로폭착장공사를
기술개건의 중심고리로 정하고 힘
있게 내밀었다.

열렬한 조국에, 활동에로 가
슴들이며 분발해나선 일군들과
군로자들은 경대와 함께 미워
기내에서 긴장한 절黝를 벌
여 많은 풍랑과 풍파를 풀어나갔다.

이들은 도로폭착장공사를
기술개건의 중심고리로 정하고 힘
있게 내밀었다.

평성시에서는 일군들과 군로
자들은 경대와 함께 미워 기내
에서 긴장한 절黝를 벌여 많은
풍랑과 풍파를 풀어나갔다.

평성시에서는 일군들과 군로
자들은 경대와 함께 미워 기내
에서 긴장한 절黝를 벌여 많은
풍랑과 풍파를 풀어나갔다.

평성시에서는 일군들과 군로
자들은 경대와 함께 미워 기내
에서 긴장한 절黝를 벌여 많은
풍랑과 풍파를 풀어나갔다.

10만산대발파 성과적으로 진행

대 흥 청 년 영 응 팔 산 에 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실현에 세기고 오늘의 증
산돌격운동에서 승리자의 영에
부를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여러 가지 형
식과 방법으로 활성화하는 한
편 군들은 그들과 함께 일군에
수백만명이 농민들을 끌어들여
증산돌격운동에 힘을 더하고
나섰다.

증산돌격운동을 위한 증산돌
격운동에로 불리워 힘을 더하고
나섰다. 일군들은 대형락광장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군
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여러 가지 형
식과 방법으로 활성화하는 한
편 군들은 그들과 함께 일군에
수백만명이 농민들을 끌어들여
증산돌격운동에 힘을 더하고
나섰다.

증산돌격운동을 위한 증산돌
격운동에로 불리워 힘을 더하고
나섰다. 일군들은 대형락광장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군
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여러 가지 형
식과 방법으로 활성화하는 한
편 군들은 그들과 함께 일군에
수백만명이 농민들을 끌어들여
증산돌격운동에 힘을 더하고
나섰다.

증산돌격운동을 위한 증산돌
격운동에로 불리워 힘을 더하고
나섰다. 일군들은 대형락광장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군
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여러 가지 형
식과 방법으로 활성화하는 한
편 군들은 그들과 함께 일군에
수백만명이 농민들을 끌어들여
증산돌격운동에 힘을 더하고
나섰다.

증산돌격운동을 위한 증산돌
격운동에로 불리워 힘을 더하고
나섰다. 일군들은 대형락광장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군
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여러 가지 형
식과 방법으로 활성화하는 한
편 군들은 그들과 함께 일군에
수백만명이 농민들을 끌어들여
증산돌격운동에 힘을 더하고
나섰다.

증산돌격운동을 위한 증산돌
격운동에로 불리워 힘을 더하고
나섰다. 일군들은 대형락광장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군
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여러 가지 형
식과 방법으로 활성화하는 한
편 군들은 그들과 함께 일군에
수백만명이 농민들을 끌어들여
증산돌격운동에 힘을 더하고
나섰다.

증산돌격운동을 위한 증산돌
격운동에로 불리워 힘을 더하고
나섰다. 일군들은 대형락광장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군
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여러 가지 형
식과 방법으로 활성화하는 한
편 군들은 그들과 함께 일군에
수백만명이 농민들을 끌어들여
증산돌격운동에 힘을 더하고
나섰다.

증산돌격운동을 위한 증산돌
격운동에로 불리워 힘을 더하고
나섰다. 일군들은 대형락광장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군
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여러 가지 형
식과 방법으로 활성화하는 한
편 군들은 그들과 함께 일군에
수백만명이 농민들을 끌어들여
증산돌격운동에 힘을 더하고
나섰다.

간 치열한 전투를 벌여 수
십km의 우회정도를 풀고들이
가 소발파를 성과적으로 전개하
였다.

부두봉에서 윤리피진 10만
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전개하
였다.

만단의 준비를 갖춘 평창에
서는 지난 9일 풀길은 청정
기념일을 맞으며 10만산대
발파를 성과적으로 전개하

였다.

간 치열한 전투를 벌여 수
십km의 우회정도를 풀고들이
가 소발파를 성과적으로 전개하
였다.

만단의 준비를 갖춘 평창에
서는 지난 9일 풀길은 청정
기념일을 맞으며 10만산대
발파를 성과적으로 전개하

였다.

간 치열한 전투를 벌여 수
십km의 우회정도를 풀고들이
가 소발파를 성과적으로 전개하
였다.

간 치열한 전투를 벌여 수
십km의 우회정도를 풀고들이
가 소발파를 성과적으로 전개하
였다.

지금 대홍성
년영옹광산 일
군들과 광부들
은 10만산대
발파를 성과적

으로 전개하여 기별진 광석
발을 마련한 기세드높이 당
면한 광석을 통과해나가고 있다.

만경대구역 만경대 남세계문
농장을 비롯한 황해남도인의 다른
평도업적단위 일군들과 농장원들
도 뜻깊은 풀길을 풀어놓는 일과
를 힘있게 벌여 가을길이 겨우나에
서 날마다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평군 삼지강협동농장의 일
군들과 농장원들이 가을길이와
날갈길기점으로 날마다 농장을
운영을 힘있게 벌여 가을길이와
날갈길기점으로 날마다 농장을
운영을 힘있게 벌여 가을길이와
날갈길기점으로 날마다 농장을
운영을 힘있게 벌여 가을길이와
날갈길기점으로 날마다 농장을
운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은 속도전의 불바람

증산투쟁의 불길 속에 전진해온 기적 창조의 나날을 터들어 (2)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상사업을 확고히 세우시고 민민대중의 정신력을 끌어올려 만사를 해결하여 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한 경도가 있어 우리 혁명은 역사의 생생길을 헤쳐오면서도 자기의 기발에 승리만을 아로새길수 있습니다.』

주체조선의 역사는 중산돌격의 열풍속에 끊임없는 비약과 전변이 여 있다.

속도전의 불바람은 사상의 열풍

1970년대 70일전투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경제건설력사에 및나는 본보기로 이어져 겨져 있다.

주체 63(1974년)으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대건설전투가 시작된 해이며 당시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용대한 강행을 수행하는데서 결정적의의는 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시 세계를 휩쓰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속도전의 불바람으로 밀어내고 경제발전에서 대비책을 일으키기 위한 70일전투를 결심하신것은 그 누구도 내릴수 없는 대용단이었다.

년초부터 9월말까지 아홉달동안 해변 향과 맞닿은 이를친 파제를 남은 세밀동안에 해제까지 암연에 암되었던 그때 전당, 전민을 불리일으켜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실 결심을 품으시고 70일전투를 밟기 하신 위대한 장군님.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결심을 들으신 날 이후 일군에게 꽤 그런지 오늘 8월총파동이 날치면 그때 강선을 찾아가면 일이 생각난다고 드로게 표시하시었다. 우려 혁명에 새롭게 천리마속도를 요구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70일전투를 포착하시는 자리에서 일군들에게 사실 이번에 나가는 지도소조는

열어놓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타월한 경도밑에 우리 인민은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에도 새로운 사회주의 전성속도로 뚫어놓았던 경도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았다.

『천리마고조시기의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

천리마고조의 전통을 계승하여 당대 한 경제건설업자를 수행하고 1980년대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전성속도에서 가장 빛나는 위훈의 년대로 되게 하자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구호에 담으신 숭고한 원동력이었다.

주체 71(1982)년 8월의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8차전원회의는 우리 당에서 처음으로 지방현지에서 일련 역사적인 활동전선의 대회로 일리어져있다. 이 회의를 발기하신 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합동전원회의는 1980년대에 우리 나라 지방공업에서 상상유초월하는 비약적발전을 이루어 한창성장세의와 같은 역사적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당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가 평양이 아니라 광양비중이 큰 도의 소재지인 함흥에서 열리고 회의에 참가자들이 겸직지구를 참관한 것은 합

남우 불리일으키고 철운을 고무총동

한 획기적인 기회로 되었다. 이것은

김제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90·91·92·93·94·95·96·97·98·9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00·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00·201·202·203·204·205·206·207·208·209·210·211·212·213·214·215·216·217·218·219·210·211·212·213·214·215·216·217·218·219·220·221·222·223·224·225·226·227·228·229·220·221·222·223·224·225·226·227·228·229·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30·231·232·233·234·235·236·237·238·239·240·241·242·243·244·245·246·247·248·249·240·241·242·243·244·245·246·247·248·249·250·251·252·253·254·255·256·257·258·259·250·251·252·253·254·255·256·257·258·25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60·261·262·263·264·265·266·267·268·269·270·271·272·273·274·275·276·277·278·279·270·271·272·273·274·275·276·277·278·279·280·281·282·283·284·285·286·287·288·289·280·281·282·283·284·285·286·287·288·289·290·291·292·293·294·295·296·297·298·299·290·291·292·293·294·295·296·297·298·299·300·301·302·303·304·305·306·307·308·309·300·301·302·303·304·305·306·307·308·309·310·311·312·313·314·315·316·317·318·319·310·311·312·313·314·315·316·317·318·319·320·321·322·323·324·325·326·327·328·329·320·321·322·323·324·325·326·327·328·329·330·331·332·333·334·335·336·337·338·339·330·331·332·333·334·335·336·337·338·339·340·341·342·343·344·345·346·347·348·349·340·341·342·343·344·345·346·347·348·349·350·351·352·353·354·355·356·357·358·359·350·351·352·353·354·355·356·357·358·359·360·361·362·363·364·365·366·367·368·369·360·361·362·363·364·365·366·367·368·36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70·371·372·373·374·375·376·377·378·379·380·381·382·383·384·385·386·387·388·389·380·381·382·383·384·385·386·387·388·38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390·391·392·393·394·395·396·397·398·399·400·401·402·403·404·405·406·407·408·409·400·401·402·403·404·405·406·407·408·409·410·411·412·413·414·415·416·417·418·419·410·411·412·413·414·415·416·417·418·419·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20·421·422·423·424·425·426·427·428·429·430·431·432·433·434·435·436·437·438·439·430·431·432·433·434·435·436·437·438·439·440·441·442·443·444·445·446·447·448·449·440·441·442·443·444·445·446·447·448·449·450·451·452·453·454·455·456·457·458·459·450·451·452·453·454·455·456·457·458·459·460·461·462·463·464·465·466·467·468·469·460·461·462·463·464·465·466·467·468·469·470·471·472·473·474·475·476·477·478·479·470·471·472·473·474·475·476·477·478·479·480·481·482·483·484·485·486·487·488·489·480·481·482·483·484·485·486·487·488·489·490·491·492·493·494·495·496·497·498·499·490·491·492·493·494·495·496·497·498·499·500·501·502·503·504·505·506·507·508·509·500·501·502·503·504·505·506·507·508·509·510·511·512·513·514·515·516·517·518·519·510·511·512·513·514·515·516·517·518·51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20·521·522·523·524·525·526·527·528·529·530·531·532·533·534·535·536·537·538·539·530·531·532·533·534·535·536·537·538·539·540·541·542·543·544·545·546·547·548·549·540·541·542·543·544·545·546·547·548·549·550·551·552·553·554·555·556·557·558·559·550·551·552·553·554·555·556·557·558·559·560·561·562·563·564·565·566·567·568·569·560·561·562·563·564·565·566·567·568·569·570·571·572·573·574·575·576·577·578·579·570·571·572·573·574·575·576·577·578·579·580·581·582·583·584·585·586·587·588·589·580·581·582·583·584·585·586·587·588·589·590·591·592·593·594·595·596·597·598·599·590·591·592·593·594·595·596·597·598·599·600·601·602·603·604·605·606·607·608·609·600·601·602·603·604·605·606·607·608·609·610·611·612·613·614·615·616·617·618·619·610·611·612·613·614·615·616·617·618·619·620·621·622·623·624·625·626·627·628·629·620·621·622·623·624·625·626·627·628·629·630·631·632·633·634·635·636·637·638·639·630·631·632·633·634·635·636·637·638·639·640·641·642·643·644·645·646·647·648·649·640·641·642·643·644·645·646·647·648·649·650·651·652·653·654·655·656·657·658·659·650·651·652·653·654·655·656·657·658·659·660·661·662·663·664·665·666·667·668·669·660·661·662·663·664·665·666·667·668·669·670·671·672·673·674·675·676·677·678·679·670·671·672·673·674·675·676·677·678·679·680·681·682·683·684·685·686·687·688·689·680·681·682·683·684·685·686·687·688·689·690·691·692·693·694·695·696·697·698·699·690·691·692·693·694·695·696·697·698·699·700·701·702·703·704·705·706·707·708·709·700·701·702·703·704·705·706·707·708·709·710·711·712·713·714·715·716·717·718·719·710·711·712·713·714·715·716·717·718·719·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720·721·722·723·724·725·726·727·728·729·730·731·732·733·734·735·736·737·738·739·730·731·732·733·734·735·736·737·738·739·740·741·742·743·744·745·746·747·748·749·740·741·742·743·744·745·746·747·748·749·750·751·752·753·754·755·756·757·758·759·750·751·752·753·754·755·756·757·758·759·760·761·762·763·764·765·766·767·768·769·760·761·762·763·764·765·766·767·768·769·770·771·772·773·774·775·776·777·778·779·770·771·772·773·774·775·776·777·778·779·780·781·782·783·784·785·786·787·788·789·780·781·782·783·784·785·786·787·788·789·790·791·792·793·794·795·796·797·798·799·790·791·792·793·794·795·796·797·798·799·800·801·802·803·804·80

증산돌격운동에 박차를 가하여 5개년전략목표수행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과학기술의 앞재를 메고 진격의 돌파구를

통성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

통성기계련합기업소 선군부 철광장에 확립된 연소모형주조 기술용정이 은을 내고 있다. 일반적인 주조방법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비탈비없이 우월한 연소모형주조기술을 도입한 결과 수백만톤선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수차바가지를 계획생산하게 되었다.

새로운 주조기술화를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 우리는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사업을 끌어까지 책임지고 이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새기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지난 시기 선군주철광장에서 쓰면 주조방법은 생산주기가 길고 사량용정에 풀이 많이 들어 제품의 질을 원만히 보장할 수 없었다. 더우기 문제로 전 것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수차바가지선에서 일부 오작품이나오는 것이었다.

지배인을 비롯한 련합기업소

의 일군들은 새 주조기술을 도입할 뜻한 목표를 정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현합기업소 일군들이 새 주조기술도입사업을 시작부터 미지막까지 적임률을 끌고 강하게 밀고나간 것이다.

시작이 철반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시작을 잘 막고 하여 경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일군들은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자기와 책임진다는 입장에서 원장에게 실천해나가야 한다.

새 기술도입과 같이 실험과 성공의 갈림길이 엇갈리려는 기술혁신사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현합기업소에서 차례로 만든 주형설계의 연구과정을 놓고보자. 현합기업소의 기술집단은 연소모형주조기술에서 중요한 재료의 하나인 주형철감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물을 결심하고 연구에 몰두하였다.

실험을 거듭하고 오작품들이 나오면마다 좋지 못한 소리가 뒤따랐고 심지어 기업소 자체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소리까지

울려나왔다. 더욱이 연구사업과 정에 소비되는 재료와 자재도 문제였다.

하지만 기술집단은 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배심있게 연구사업을 전개해시켜나갔다. 그것은 현합기업소의 책임임을 끌고나가고자 한 힘장을 가지고 기술자들과 함께 책임지는 입장에서 현장에 나가 설계와 설비제작현장을 끌고나가기 때문이다.

지배인은 물론 현합기업소의

당체임일군은 현장에 끌어살다

싶이 하면서 연구사업에서 걸린

고리를 풀어주기 위해 뛰고 또

뛰었다. 일군들은 연구성원들과 실험의 원인을 분석해나가며 파악

적인 노력에 의해 선군주철광

장에 연소모형에 의한 주조기술

용정이 확립되었으며 수차바기

자를 계획생산할 수 있는 학교한

기도 하였다.

새 기술도입사업의 주인이라

는 자작을 암고 지혜와 청열을

깡그리 바꿔가는 일군들의 신선

노력을 품은 풀밭한 걸성을 알

아왔다. 연소모형주조기술도입

을 맡은 기술집단은 자체의 힘

과 기술로 주체식의 주형철감

을 풀어히 만들에 내고야말았다.

이로써 연소모형주조기술을

수차바기 기술상 산공정에 밟아들

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

게 되었다.

본사기자 리호성

우리 젊은은 물고기를 헤시하지

않고 신선한것으로 일군들의 식

탁에 기대게 하는 축면에서 놓

고보아도 이 기술개조가 가지는

의의는 크다.

지난 7월 사업소의 일군들

은 금통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 개공정장

맹동작업반의 노동자, 기술자

들은 일군과 함께 금통설비를

제작해내고는 힘을 모아

움직여 기관을 끌어들여

움직여 기관을 끌어들여</p

우리 당의 체육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

성황리에 진행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 2018을 보고

평시에 련마한 높은 기술을 보여준 결승경기

평양체육관

조선로동당창건 73돐이 되는 뜻깊은 10월 10일에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 2018이 전부 끝났다.

이 날 평양체육관에서는 종목별결승경기들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으며 종합순위가 발표되었다.

평양시는 이번 대회에서도 또다시 1 등을 차지하고 순회우승컵을 들어았으며 평안남도가 2위, 평안북도가 3위를 차지하였다.

5번째 남북을 이어세운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는 온 나라에 치닫히는 드높은 체육열의 그 밤천면모를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국도대항체육경기와 함께 시, 군부사,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대항경기들을 조직하여 근로자들의 봄과 마음을 들판히 단련하고 체육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나 야 합니다.』

평양시립과 평안남도립사이의 남자배구결승경기가 두고 판람자들은 출결승경기에 파인 어느 팀이 진출하겠는가 품처럼 가능하기 어려워했다.

판람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사실 평양시립과 평안남도립은 다같이 나조에서는 평양시립과 평안남도립이 출결승경기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가조에서는 평해남도립이 조별련맹전에서 맞다른 모든 팀들을 모두 2:0으로 이기고 조에서 1등으로 출결승경기에 참가하였다.

출결승경기에서 평양시립은 항경남도립을, 평안남도립은 평해남도립을, 결국 결승경기에서 평안남도립이 우승하고 평양시립이 2위를, 평해남도립이 3위를 차지하였다.

남자구결승경기로 달아온 평양체육관의 분위기는 장애물과 평화경기와 대체로 운동유아오락경기들로 더욱 고조되었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 2018은 바다를 기점으로 최종정을 이루었다.

5개년전략목표수행 종간평가 운동에 산악같이 떨어져나온 경제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우상은 힘들며, 1회전을 승리로 결승하게 되었다. 2회전은 평양시립이 이것으로 경승하였다.

판람자들은 손에 힘을 주어 하는 3회전에서 처음에는 평양시립이 앞서나갔다. 끝은 속도로 남아온 힘을 압살하는 데에 의의를 가지는 끊임은 계기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에서

홍미를 끄는 조별련맹전이 전부 결속되어 나조에서는 평양시립과 평안남도립이 출결승경기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가조에서는 평해남도립이 조별련맹전에서 맞다른 모든 팀들을 모두 2:0으로 이기고 조에서 1등으로 출결승경기에 참가하였다.

출결승경기에서 평양시립은 항경남도립을, 평안남도립은 평해남도립을, 결국 결승경기에서 평안남도립이 우승하고 평양시립이 2위를, 평해남도립이 3위를 차지하였다.

결국 이번 배구경기에서 평안남도립이 우승하고 평양시립이 2위를, 평해남도립이 3위를 차지하였다.

남자구결승경기로 달아온 평양체육관의 분위기는 장애물과 평화경기와 대체로 운동유아오락경기들로 더욱 고조되었다.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 - 2018은 바다를 기점으로 최종정을 이루었다.

5개년전략목표수행 종간평가 운동에 산악같이 떨어져나온 경제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우상은 힘들며, 1회전을 승리로 결승하게 되었다. 2회전은 평양시립이 이것으로 경승하였다.

판람자들은 손에 힘을 주어 하는 3회전에서 처음에는 평양시립이 앞서나갔다. 끝은 속도로 남아온 힘을 압살하는 데에 의의를 가지는 끊임은 계기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앞날의 유능한 체육선수후보들이 자란다



① 대권도경기에서

체육도 맞서기경기에서 차강도립의 김현우선수에게 경쟁기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렇게 되어 김현우선수는 조에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김현우선수를 제외하고 준결승경기에서 진출한 선수들은 모두 기술수준이 높고 어려치며의 국심이 충동되면서 전적이 있는 선수들이었다.

비록 물무게는 작고 나이도 어리지만 원하는 선수들을 낳았지만, 당시 자리를 차지하는 3회전에서 차운에는 평양시립이 앞서나갔다. 끝은 속도로 남아온 힘을 압살하는 데에 의의를 가지는 끊임은 계기였다.

전 분야는 김현우선수의 경기파장을 두고 전기도 기대되는 선수라고, 맞서기 강자로 차지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딘 이들은 태권도를 적극 참여하는 면에서 차별화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체육도 맞서기경기에서 차강도립의 김현우선수에게 경쟁기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체육도 맞서기경기에서 차강도립의 김현우선수에게 경쟁기들의 이목이 집

자주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실천강령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해 마련된 《9월평양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통일의 시대,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실천강령이다.

우리 민족은 누구나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철저한 이행에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번영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민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브루한 관례와 광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서 구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때에 정양에서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었던 것은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갈 것을 확약한 민족주의 선언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계획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펼쳐나가기 위해 개척해나갈 힘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침해당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사회적인 요구이며 겨레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사이다.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풀고 남에게 의존해서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송인을 받고 하

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조국통일 문제는 오직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해서만 옮바로 물어나갈 수 있다.

조국통일을 원하는 것도 우리 민족이고 그것을 달달수행해야 할 당사자다. 끌어낸 북과 남, 해외의 조선민족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으며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방략이 있다.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은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며는 민족자주주의 기상을 세상에 파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9월평양공동선언》을 통하여 북과 남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민족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내외에 압축하여 선포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이 온 민족과 국제사회에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것이다.

민족자주의 길을 투렷이 명시한 《9월평양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의 힘과의 당당한 주인이라는 자각을 심어주고 그들 모두를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스트레스를 애로해나가며 미연에 마련되었다. 그처럼 젊은 기간에 세계를 정면시키는 사변들이 연속 일어난 것은 북남관계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로서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4. 27 선언의 리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온 거제를 기쁘게 해주는 성과들이 펼쳐나가며 미연에 마련되었다. 그처럼 젊은 기간에 세계를 정면시키는 사변들이 연속 일어난 것은 북남관계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로서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위업수행의 전형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북남관계에서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을 알리질 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은 절대로 뛰어나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거제는 역사적인 계획으로 보였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송인을 받고 하

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조국통일 문제는 오직 우리 민족자결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적 화해와 평화에 대한 북남관계의 흐름을 꾸준히 통일에도 이어질 것을 바라고 있다.

《9월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성과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통일에 이어나가기 위한 길을 투렷이 밝혀준 우리 시대의 통일 강령이다.

올해 북남관계에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구적인 순간들이 마련되고 종교인들의 이룩됨으로써 오랜 세월이 이룩되었지만 북남관계는 마침내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주동적으로 취한 조치들과 성과 있는 노력은 북남관계에서 경쟁적인 성과들이 이룩된 주되는 요인으로 되었다.

온 겨레의 통일열기가 달아오르는 속에 민족별 험사 체육으로 판문점에서 두 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열린 것이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출발을 알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역사적인 제 3 차, 제 4 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이루어져 4. 27 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의 힘과의 당당한 주인이라는 자각을 심어주고 그들 모두를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스트레스를 애로해나가며 미연에 마련되었다. 그처럼 젊은 기간에 세계를 정면시키는 사변들이 연속 일어난 것은 북남관계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로서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4. 27 선언의 리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온 거제를 기쁘게 해주는 성과들이 펼쳐나가며 미연에 마련되었다. 그처럼 젊은 기간에 세계를 정면시키는 사변들이 연속 일어난 것은 북남관계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로서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위업수행의 전형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북남관계에서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을 알리질 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은 절대로 뛰어나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거제는 역사적인 계획으로 보였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송인을 받고 하

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조국통일 문제는 오직 우리 민족자결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적 화해와 평화에 대한 북남관계의 흐름을 꾸준히 통일에도 이어질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겨레의 공통된 지향과 넓чин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월평양공동선언》이다. 선언에는 새로운 회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리는 겨레의 넓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행착될 우리 모두의 품에 달려있다.

역사적인 4. 27 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성과에 토대하여 북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통일에 이어나가기 위한 길을 투렷이 밝혀준 우리 시대의 통일 강령이다.

올해 북남관계에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구적인 순간들이 마련되고 종교인들의 이룩됨으로써 오랜 세월이 이룩되었지만 북남관계는 마침내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다. 우리 공화국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주동적으로 취한 조치들과 성과 있는 노력은 북남관계에서 경쟁적인 성과들이 이룩된 주되는 요인으로 되었다.

온 겨레의 통일열기가 달아오르는 속에 민족별 험사 체육으로 판문점에서 두 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열린 것이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출발을 알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역사적인 제 3 차, 제 4 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이루어져 4. 27 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의 힘과의 당당한 주인이라는 자각을 심어주고 그들 모두를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스트레스를 애로해나가며 미연에 마련되었다. 그처럼 젊은 기간에 세계를 정면시키는 사변들이 연속 일어난 것은 북남관계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로서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4. 27 선언의 리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들이 취해지면서 온 거제를 기쁘게 해주는 성과들이 펼쳐나가며 미연에 마련되었다. 그처럼 젊은 기간에 세계를 정면시키는 사변들이 연속 일어난 것은 북남관계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로서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위업수행의 전형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북남관계에서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을 알리질 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은 절대로 뛰어나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거제는 역사적인 계획으로 보였다.

조국통일은 그 누구의 송인을 받고 하

《백승의 조선로동당》

여러 나라 신문들

특집

조선로동당창건 3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들이 특집하고 글을 게재하였다.

라오스인문 《빠씨손》 2월부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월평양공동선언》이다. 선언에는 새로운 회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의지로 불리는 겨레의 넓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행착될 우리 모두의 품에 달려있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을 정신력의 강자로 키워 조선로동당의 위업, 사회주의 강국건설실무수행 행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이 이룩되게 하시였다.

그이의 힘은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

김정일통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히 창건자이신 강장한하고 결단적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조선로동당은 물론이 걸 및 남값이다.